

## 2024 년 8 월 11 일 “(생명의 공동체 1) 자라는 곳”(엡 4:1-3)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얻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의 공동체의 시작과 특징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 둘이 만나 이룬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생기)을 불어넣어 생명체(생령)로 만드신 존재로서(창 2:7),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된 존재입니다.

최초의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아담 이후 세상과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짝을 찾아 이루는 하나됨이라는 기초적 요소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보편적 차원에서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타락의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행 2 장).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회개라는 중요한 내적 변화를 입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죄와 타락에서 건지신 구주이시며, 삶의 주이심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방향전환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는 교회는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 안에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라는 소명을 받습니다(3 절). 하나됨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력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됨 속에서 협력, 화목, 서로 사랑함의 꽃이 피어나고, 고난과 죄와 장애요소들을 이겨 나갈 힘을 얻습니다.

### [2] 하나됨의 길

교회가 하나되는 길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때, 영적 눈을 뜨고 보니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신 것 같이 그를 받아 주셨으니 그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롬 15:7).

그런데 사탄은 하나됨을 항상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수법은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짓말로 유혹하여 나를 지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하나됨을 깨뜨려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대처할 길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 [3] 품어야 할 것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내적/외적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 (1) 아픔(자기 성향과 관점으로 말미암아)
- (2) 고통(환경과 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 (3) 미움과 상처(타인과 관계 속에서)
- (4) 우울과 비관(의미와 가치를 잃음으로)
- (5)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인식과 습관의 왜곡, 주님 사랑을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품어야 할 것들이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고난까지 받아들이셔서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을 배울 때 우리는 자랍니다. 남편 아내로서, 전문인으로서, 친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랍니다. 이 성장의 길을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배우고 겸허히 정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사람이 인격과 안목, 그리고 관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까요?
2.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장하도록 공동체에 어떤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